

## ▶ 부미푸트라 정책

말레이시아의 현지민족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경제활동, 교육, 취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하도록 하고 기업공개 및 정부 조달계약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은 말레이계에게 최소 30%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 ■ 정책적 배경

말레이시아에서 신문을 읽다 보면 주택분양시 부미푸트라에게는 10%할인해 주겠다고 몇 채는 부미푸트라에게 할당해 놓았다는 등의 광고가 공식적으로 게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미푸트라기업에게만 자금을 주겠다고 기관도 있고 부미푸트라만 거래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며 고용정원의 일정수를 부미푸트라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미푸트라 정책 때문이다.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눈에 부미푸트라 정책은 심한 인종차별로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적 약자인 말레이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말레이시아 사회를 실질적인 평등과 안정에 한 발 다가서게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부미푸트라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부미(Bumi- 땅 또는 지대)와 푸트라(Putra- 자손 또는 왕자)라는 단어의 복합어로 '이 땅의 자손 혹은 '이 땅의 주인'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만 총인구 2,300만명 중 62.7% 정도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 말레이인과 인구의 28.8% 정도인 중국계 그 외의 인도계 등 68개의 다양한 종족이 종교나 거주지, 직업, 소득 등을 달리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한 채 병존하는 이른바 복합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 중 이 땅에 아주 오래 전 이주해온 종족과 토착인,

이슬람교도들을 통틀어 부미푸트라라고 하는데 대체로 중국계 주민보다 빈곤한 편이다.

이 중 중국계는 전체 인구의 28.8%밖에 안 되지만 먼저 이주해 온 다른 종족보다 훨씬 부유하며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통치 160여년동안 고무, 야자 등의 농장과 주석광산 개발을 위해 인도인과 함께 노동자로 이 땅에 끌려온 중국인들은 근면을 바탕으로 영국인이 물려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다. 중국인들이 경제권을 대부분 장악하게 되자 상업의 중심거리에는 한자간판이 넘쳐나고 중국식 주택, 학교 건립, 불교사찰 건설 등으로 중국인지 말레이시아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영국 식민통치에서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10여 년만에 중국인과의 격심한 빈부차로 또 다른 경제적인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1969년 5월 13일 드디어 말레이인들의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였다. 이들은 중국인만 모여 사는 중국인촌을 공격하고 중국인만 다니는 중국영화관 앞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 중국상점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고 중국인을 죽여야 한다는 괴문서가 나돌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이 폭동은 집권당은 물론 각계각층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중국인내에서도 반성이 뒤따랐다. 아무리 돈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이 라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말레이인들이 사는 마을로 이사가기도 하고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던 태도도 자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집권당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을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찾았다. 이는 1970년도 말레이시아 내국인의 자본소유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말레이계가 6.5%인 반면 중국계들은 9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만총리의 하야로 새로이 총리가 된 Tun Abdul Razak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약 1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20년간 (1971~1990)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다. 중국인보다 먼저 이주해왔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말레이인종, 토착인종, 이슬람교도들을 전부 통틀어서 부미푸트라로 정하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미푸트라 정책이다.

### ■ 정책의 시행

정책의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부의 재편성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는 부미푸트라 소득증대를 위해 취업을 보장해 주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기업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비(非)부미푸트라 기업도 부미푸트라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중국인 기업에 임원으로 취직시켜 경영방법을 습득하도록 했다.

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10% 할인해 주도록 장려하고 또한 대학정원 중 상당량의 쿼터를 부미푸트라에게 할당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부미푸트라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중국인들에게 대학의 문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8개뿐인 종합대학의 정원이 6만명(1990년 기준)밖에 안 되는 데다 부미푸트라에게 70%의 쿼터를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 아니어서 국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 해외유학을 떠나야 했다.

또한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단지 부미푸트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도 부미푸트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중국인들은 중산층으로서 나름대로 의사표시의 통로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이익을 기치로 내건 20여개 정당들이 난립하는 속에 중국인들의 정당은 연립내각 연립정당 제2의 계파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10여년전 독립할 당시에야 비로소

정식 시민권을 부여받을 만큼 정착의 뿌리도 약했고 중국의 공산화로 돌아갈 조국을 상실한 상태였다.

### ■ 정책의 성과

어쨌든 인종간의 소득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으로 극약처방 같은 차별정책을 실시한지 30년이 지났고 그 결과 전체 내국인 소유자본 중 30%이상을 부미푸트라계가 차지하게 되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중국상인으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던 이들이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 등장하게 되어 서로에게 득이 된 셈이다.

부미푸트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은 말레이시아인들의 국민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영어는 'Reasonable(합리적)'하다는 말이다. 이 곳 사람들은 모두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면 합리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또 대체로 유순하지만 자기의 불만을 쉽게 주장하는데 이는 상대방과 일전을 겨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사정이 이러하니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Appeal'의 개념이다. 따라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곤 한다.

인종간 갈등이 항상 내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Appeal 과 Compromise(타협)를 관습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화합을 이룬 말레이시아는 LA 폭동과 보스니아 내전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30여년 전 발생한 비슷한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어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배우러 왔던 말레이시아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경제발전의 성공을 배우러 저개발국 지도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인종갈등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을 배우러 온다는 사실이다. ☉